이슈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소주 초등아

알립니다

지자체 우수행정대상 공모

단체장·지방의회 등 시상…8월 27일 마감



스포츠동아는 '2021 대 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우수 행정대상' 후보를 공모합니 다.

우수행정대상은 전국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와 관련 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습 니다.

시상 분야는 ▲지역복지 ▲지역경제 ▲방역 우 수 ▲우수 의정활동 ▲지방행정 우수 연구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 ▲스마트 도 시 ▲지역재생 ▲지역 브랜드 등 다양합니다.

응모 자격은 지방행정 선진화에 기여한 ▲지자 체 또는 단체장 ▲국회의원 및 시도 및 지방의회, 의원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교수 등입니다.

후보자는 응모신청서,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제 출해야 하고. 수상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개별 통보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 랍니다.

- ●신청 마감: 2021년 8월 27일(금)
- ●접수: sol@donga.com
- ●시상식: 9월 15일(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동아일 보 사옥 9층
- ●문의: 스포츠동아 02-361-1616

10년째 무승…벤투호, 악연 끊어낼까?

9승9무13패…상대전적부터 열세 아자디스타디움선 2무5패 맥 못춰 8년전엔 '주먹감자 세리머니' 공분 승점 제물로 삼고 설욕할지 주목

10회 연속, 통산 11회 월드컵 본선 진 출에 도전하는 한국축구가 최종예선에 서 또 '앙숙' 이란과 경쟁한다.

한국은 1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콸 라룸푸르에서 진행된 2022카타르월드 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 추첨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A조에 묶였다. 사상 처음 중동 국가들과만 월드컵 마지막 길목에서 마 주쳤다는 점도 부담스럽지만, 특히 이란 과 다시 만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10년 남아공을 시작으로 2014년 브라 질, 2018년 러시아에 이어 카타르월드 컵까지 이란과 4회 연속 최종예선에서 만나게 됐다.

유쾌한 추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훨

한국 최종예선 일정 (현지시간)							
날짜	홈/원정	상대	날짜	홈/원정	상대		
2021.9.2	홈	이라크	2021.11.16	원정	이라크		
9.7	원정	레바논	2022.1.27	홈	레바논		
10.7	홈	시리아	2.1	원정	시리아		
10.12	원정	이란	3.24	홈	이란		
11,11	홈	UAE	3,29	원정	UAE		

씬 많다. 한국은 최근 10년째 이란을 이 겨보지 못했다. 고비마다 번번이 덜미를 잡히며 가시밭길로 향했다.

이란은 남다른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 통적인 힘의 축구를 구사한다. 상대전적 부터 열세다. 9승9무13패로 밀린다. 한 국이 이란을 꺾은 것은 2011카타르아시 안컵 8강전이 마지막이다. 연장 접전 끝 에 1-0으로 승리한 이후 6경기 연속무승 (2무4패)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만 최근 2경기는 모두 비겼다. 2017년 8월 러시 아월드컵 최종예선 홈경기에선 0-0, 2019년 6월 국내 평가전에선 1-1 무승 부를 각각 기록했다.

월드컵 최종예선만으로 범위를 좁혀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포르투갈)은

2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 편성					
	국가	FIFA 랭킹	2차 예선 성적			
	한국	39위	H조 1위(5승1무)			
	이란	31위	C조 1위(6승2패)			
	UAE	73위	G조 1위(6승2패)			
	이라크	68위	C조 2위(5승2무1패)			
	시리아	79위	A조 1위(7승1패)			
	레바논	93위	H조 2위(3승1무2패)			
	일본	28위	F조 1위(8승)			
	호주	41위	B조 1위(8승)			
	사우디아라비아	65위	D조 1위(6승2무)			
	중국	77위	A조 2위(6승1무1패)			
	오만	80위	E조 2위(6승2패)			

※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5월 기준

도 처참하다. 1994년 미국대회를 앞두 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최종예선의 3-0이 마지막 승리다. 남아공 때는 2무. 브라질 때는 2패. 러시아 때는 1무1패

92위

G조 2위(5승2무1패)

이란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계기 는 2013년 6월 울산에서 열린 브라질월 드컵 최종예선이었다. 당시 이란을 이끈

1-0 승리 직후 한국 벤치까지 다가와 '주 먹감자' 세리머니를 날려 공분을 샀다.

이란의 안방 아자디스타디움도 빼놓 을 수 없다.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자자한 이곳은 최대 9만 명을 수용하고, 본부석 맞은편에는 자국 지도자인 호메이니와 하메네이의 초대 형 초상화가 부착돼 있다. 아주 최근에 야 여성 팬들의 입장을 허용할 만큼 마 초적 분위기가 가득한데, 해발 1273m 고지대에 위치해 절대적으로 이란에 유 리한 곳이다. 아자디스타디움에서도 한 국은 웃어보지 못했다. 1979년 9월 테헤 란아시안게임 본선에서 당한 0-2 패배 를 시작으로 2무5패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확실한 승점 제물로 삼을 만한 팀이 전무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삐끗하면 아주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접 전이 예고된 가운데 '벤투호'는 이란에 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일본·호주와 한조···'박항서의 베트남' 살아남을까?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 추첨이 1일 열린 가운데 B조에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오만, 베트남이 편성됐다. 공교롭게도 일본, 호 주, 사우디는 2018러시이월드컵 최종예선 에이어또다시같은조(B)에묶였다.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일본-호주의 선두 다툼과 사우디-중국의 3위 쟁탈전 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로 이란(31위), 한국(39위), 호주 (41위)를 제치고 아시아 1위다. 2차 예 선에선 8전승으로 F조 1위에 올랐다. 총 46골을 넣은 반면 불과 2실점에 그쳤다.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된 전력을 자랑한 다. 호주 또한 8전승으로 B조 1위로 최 종예선에 올랐다.

선두경쟁을 벌일 양 팀의 역대 전적에 선 일본이 9승9무7패로 호주에 근소하 게 앞서있다. 가장 최근 A매치인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에서도 일본이 1승1무 를 거뒀다. 당시 최종예선 순위는 일본 이 1위(승점 20), 사우디가 2위(19점)로 본선 티켓을 따낸 반면 호주는 3위로 플 레이오프를 치렀다.

조에서 1위(6승2무)를 차지했다. 무승부 상대가 팔레스타인과 예멘인데, 다소 전 력의 기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우디는 역대 전적에서 호주에는 1승2무 했다.

국내 팬들의 최대 관심은 박항서 감독 이 이끄는 베트남의 성적이다. 2차 예선 G조 2위(5승2무1패)로 베트남축구 역사 상 처음으로 최종예선에 오른 가운데, 이제는 상위권과 경쟁에서도 통할 수 있 는지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의 FIFA 랭 킹은 92위로 A조 최하위 레바논(93위) FIFA 랭킹 65위 사우디는 2차 예선 D 보다 한 계단 위다. 현실적으로 같은 조 에서 겨뤄볼 만한 팀은 중국(77위)과 오 만(80위)이다. 역대전적에선 중국과 6패. 오만과 2패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5패, 일본에는 5승1무10패로 뒤져있다.

토트넘, 무리뉴 경질 74일만에 '누누 산투' 새 감독 선임

전 울버햄턴 감독…2023년 6월까지 계약 "토트넘과 동행 영광…바로 프리시즌 구상"

손흥민(29)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 L) 토트넘 홋스퍼가 누누 산투 전 울버햄턴 원더러스 감 독(47)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산투 감독의 선임 사실을 발 표했다. 4월 19일 조세 무리뉴 감독을 경질한 이후 74일 만이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포르투갈 출신의 산투 감독은 발렌시아 (스페인)와 FC포르투(포르투갈) 등을 이 끌었고, 2017~2018시즌 울버햄턴 사령탑 을 맡아 올해 5월까지 지휘했다. 부임 첫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에 속해있던 울버햄턴을 1위로 이끌며 EPL로 승격시 켰다. 2019~2020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8강에 올라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산투 감독은 "토트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 토트넘이 바라는 꿈을 함께 이

로 프리시즌을 위한 구상에 들어갈 것"이 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시즌 도중 무리뉴 감독을 경질한 토트넘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쳤다. 시즌 종료 직후부터 새 사 령탑 선임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었다. 바 이에른 뮌헨(독일) 지휘봉을 잡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비롯해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인터 밀란(이탈리아)을 이끌었던 안토니오 콘 테 감독, 전 AS로마(이탈리아) 사령탑인

루겠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곧바 파울로 폰세카 감독 등이 후보로 거론됐 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특히 콘테 감독, 폰세카 감독과는 사실상 합의 를 목전에 두고도 막판에 엎어지는 등 계 약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계속 드러났다.

>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산투 감독의 선임을 발표하면서 "긴 시간 동안 새 감독 을 찾기 위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유능한 감독과 함께하게 됐다"며 "인내해 준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남자의 3대 적을 50대 주부가 개발한 "쇠말뚝" 때문에 극복하였습니다.





- 안 서고, 작고 빨라서 자신 없는 분 -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신 분

 간편하게 즉시 되는 휴대용으로 반영구적 귀두확대로 쇠말뚝 같이 세웁니다.

★ 선불12만원 후불12만원 (일주일내 입금)

한 번 뿐인 인생 줄거워야 행복입니다. 남성수술 없이 귀두와 대물확대로 장시간 지속되는 소망을 이루어보세요. You Tube 박사 전준상 을 쳐보세요 ※ 입금 후 주소, 문자주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습니다.

농협: 1300-3551-1656-95 -우희정- 홈쇼핑주문 **010-8952-4114** 통신판매허가: 2018-1143호 인터넷 판매자 모집중 010-3895-4114

처음 본 순간 5분내로…OK

외출시 / 사회활동시 / 잠자리에서… / 고객접대에도..

남성용

남의 여자도 홀리다는 그 향수!!



여성용

3병 99,000원

3병 99,000원

처음 본 순간 5분내로 첫 눈에 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 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말 못하는 짐승들 조차도 짝짓기를 할 때는 페로몬 향이 좋게 나는 상대에게만 허락한다고 밝혀졌다. OK, 페로 몬 향수는 최고급 향수 3종으로 3병 모두 다 각각 향이 달라 이웃집 여지도 반한다는 바로 그 향수로 지나가던 여인도 뒤돌아 보며 미소 를 짓는다. 잠자리에서도 OK! 외출할 때, 고객과의 접대, 사회활동 시에도 향기가 좋은 사람에게서는 오랜 기억이 남게 된다.

농협계좌 302-1293-8408-21 예금주: 자수정 배의자 You iiiii 박사 전준상 을 쳐보세요

자수정 010-8952-4114 010-3895-4114 지역 대리점 및 수출업제 모집 홈쇼핑 010-8558-4114 010-2772-4146 010-8558-4114 전박사

이제, 바르는 시대!!

발라 주고, 마사지 해주면...

1통 (4개월분: 100ml) X 3통 = 1년분

3통 = 18만원

※최신간 소설을 선물로 드립니다.



You Tube 박사 전준상 을 쳐보세요 농협계좌 302-1293-8408-21 예금주: 자수정 배의자

자수정 010-8952-4114 010-8558-4114 홈쇼핑 010-3895-4114 010-2772-4146